

신용카드 소비통계로 본 충남 소비동향

– 소비총액은 증가, 증감률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월호 사건 영향으로 급감이후 서서히 정상화 –

임 병 철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원

<요 약>

한국은행의 신용카드 소비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소비총액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임

충남지역 소비총액은 2010년 약 7조 2천억 원에서 2014년 9조 9천억 원으로 규모면에서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전국은 약 280조 4천억 원에서 365조 5천억 원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증가율은 충남이 8.3%로 6.9%인 전국보다 높았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전국, 충남 모두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소비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에 따르면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충남은 전국에 비해 증감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상반기 충남의 전년 동기 대비 소비총액 증감률은 19.1%로 전국 14.9%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년 후인 2012년 상반기는 7.4%로 낮아졌으며, 전국은 10.3%로 오히려 충남보다 감소폭이 적어 높게 나타났다. 다시 1년 후인 2013년은 충남이 8.1%, 전국이 4.0%로 역전되었으며, 2014년 상반기는 전국, 충남 모두 증감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근소한 차이이긴 하나 충남이 전국 0.7% 보다 낮은 0.6%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상반기에 전국, 충남 모두 최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전국이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면, 충남은 전반적인 감소추세 속에서도 증감이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전국에 비해 충남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충남 소비총액은 전국의 2.7% 비중, 1가구당 소비총액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 소비 품목별 비중은 전국과 차이를 보임

2014년 충남의 신용카드 소비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도 단위에서는 경남, 경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총액을 주민등록세대로 나누어

1가구당 소비총액을 추정해본 결과, 전국은 1가구당 1,763만원, 충남은 1,135만원으로 전국보다 낮았다. 가구당 소비총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소비 품목별 비중은 전국이 유통업 27.5%, 음식숙박 11.6%, 용역서비스 9.9%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연료판매 20.9%, 유통업 20.2%, 음식숙박 16.1% 순이었다. 특히 연료판매 품목의 비중은 전국 9.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충남 지역의 차별화된 소비특성이라 볼 수 있겠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충남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전국 보다 크고, 소비품목별,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나타남

앞서 제시된 소비총액의 증감률 변화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감소추세가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2014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를 가져온 세월호 사건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소비총액에 대해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세월호 사건의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충남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전국과 충남 모두 사건 발생시점인 4월과 다음 달인 5월에 증감률이 (-)를 보이고 있으나, 충남이 전국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품목별로는 세월호 사건이 주로 내구소비재, 여행교통, 오락문화, 연료판매 품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국에 비해 충남은 상대적으로 오락문화, 의류잡화, 연료판매 품목에서 소비감소 폭이 전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품목에서 (-)를 보이고 있다. 충남의 소비품목별 비중에서 연료판매가 크게 나타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수의 품목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품목별 소비감소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점인 4월에는 전국의 소비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사건 발생 다음 달인 5월에 소비감소 폭이 커져 영향이 미치는 시점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충남 소비동향과 특성 파악, 지속적 모니터링 중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차별화된 소비정책 필요, 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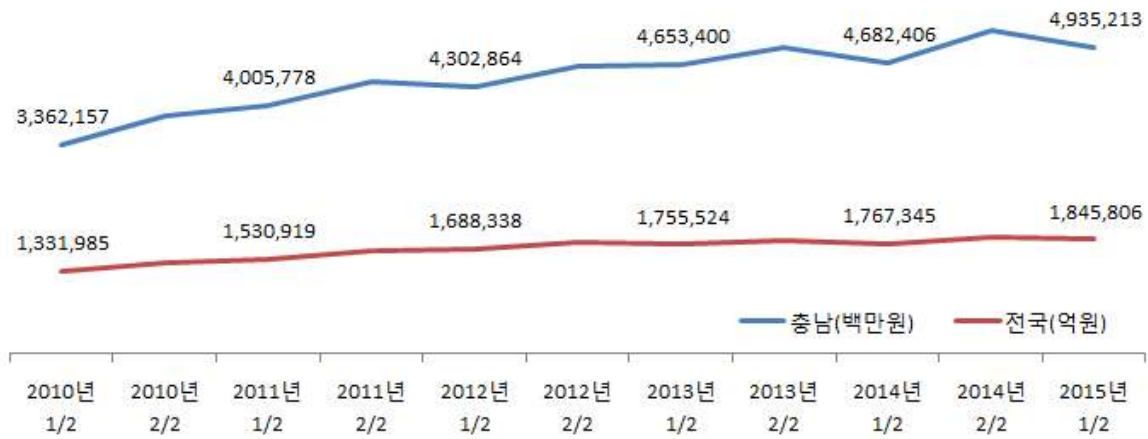
세월호 사건과 같이 소비침체를 가져오는 사례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충남 소비동향과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비시장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함께 앞서 제시한 충남만의 차별화된 소비진작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과거 사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이 중요할 것이다.

1. 신용카드 소비통계로 본 충남 소비동향

신용카드 소비통계로 본 충남지역 소비총액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규모면에서는 약 1.4배,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나타나 전국보다 높은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 동기간 전국의 성장은 규모면에서 1.3배, 연평균증가율은 6.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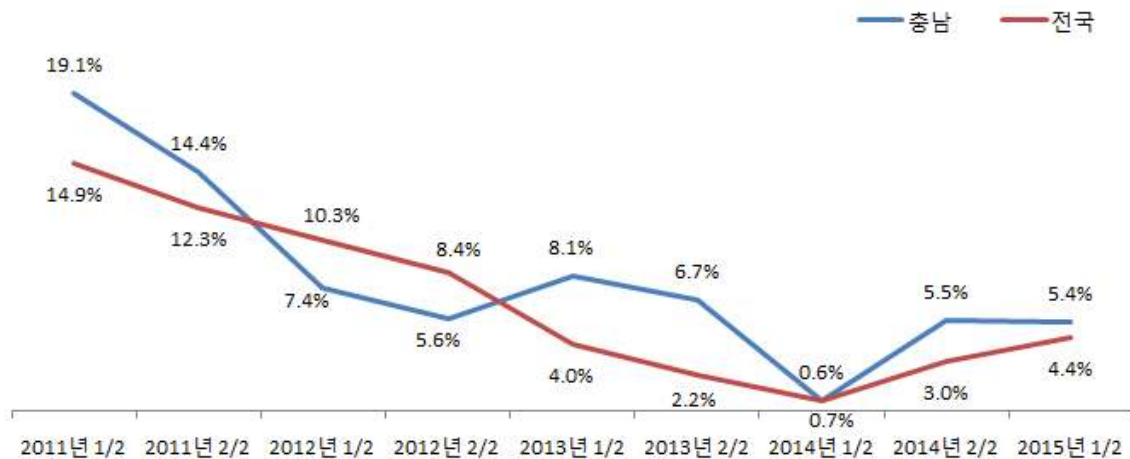
<전국, 충남의 신용카드소비총액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신용카드소비통계, 각년도 반기별

그러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2014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충남의 증감폭이 전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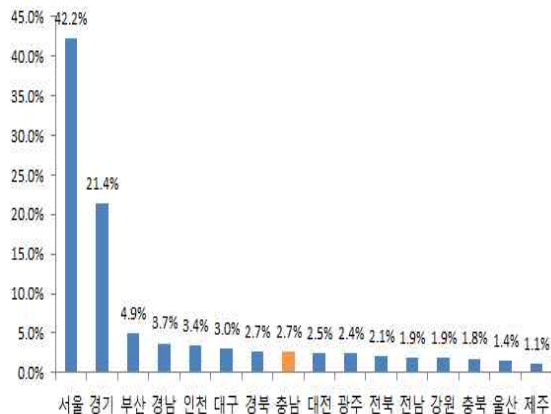
<전국, 충남의 신용카드소비총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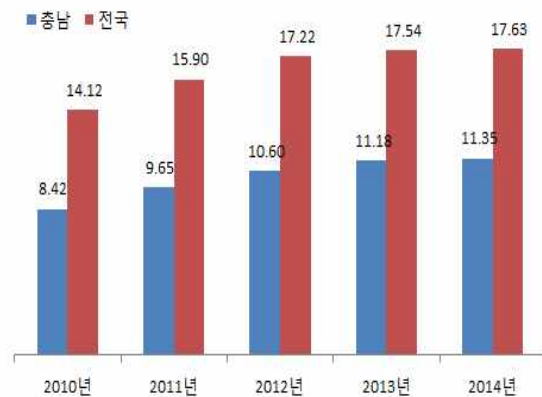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신용카드소비통계, 각년도 반기별

2014년 충남의 신용카드 소비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경남, 경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가구당 소비총액은 1,135만원으로 전국 1,763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시도별 신용카드 소비총액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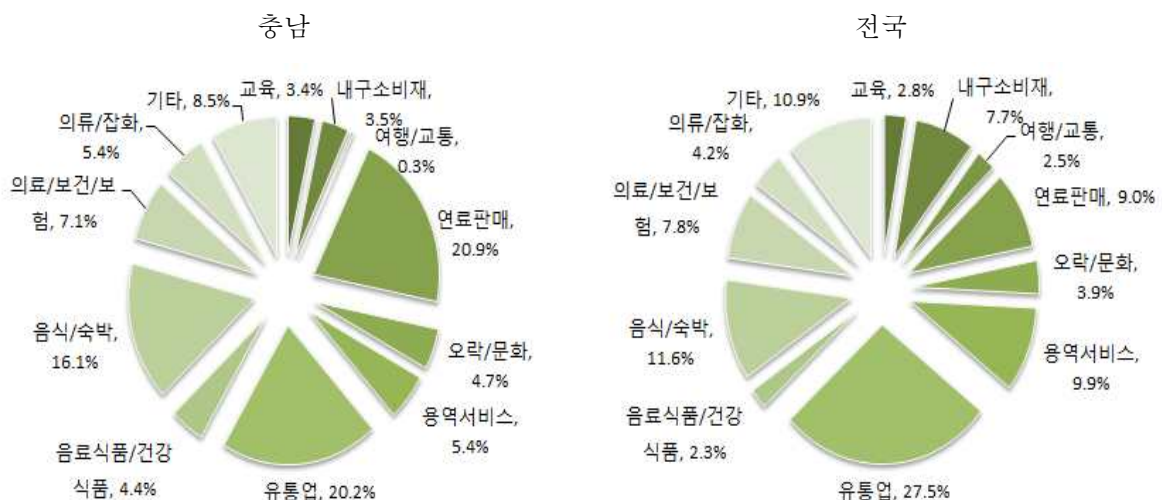
< 1가구당 신용카드 소비총액(백만원) >



자료 : 신용카드소비통계(한국은행, 2014년 기준), 주민등록세대(통계청, 2014)

소비 품목별 비중은 연료판매 부문이 전국비중에 비해 충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음식숙박, 식품 등의 부문에서 높은 반면, 유통업, 내구소비재, 용역서비스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 충남, 전국의 신용카드 소비 품목별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신용카드소비통계, 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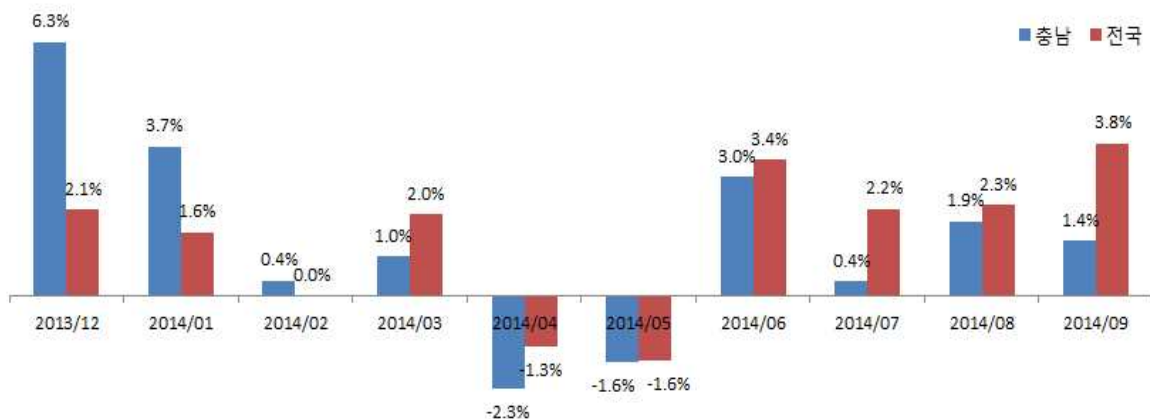
2. 세월호 침몰 사고가 충남 소비에 미친 영향

앞서 제시된 신용카드소비총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수학 여행을 계획하던 학교들 중 대부분이 계획을 취소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이틀 후 인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었다. 탑승객 중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가던 고등학생이 다수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 사고이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전후로 신용카드소비총액에 대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보면, 사건이 발생한 4월과 다음 달인 5월은 증감률이 (+)에서 (-)로 급감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과 충남을 비교해보면, 충남은 사건이 발생한 4월에 감소폭이 전국보다 크게 나타나 세월호 사건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사건 기간의 신용카드소비총액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신용카드소비통계

세월호 사건의 영향을 소비 품목별로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4월과 5월 충남과 전국의 소비 품목별 신용카드 소비총액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에 따르면, 내구소비재, 여행/교통, 연료판매 등의 품목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이 준 소비감소의 영향은 충남과 전국에 몇 가지 차이를 두고 나타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4월 소비감소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충남에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국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반면, 충남은 사건 다음 달인 5월에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은 오히려 소비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품목별로도 차이가 발생했다. 전국이 내구소비재, 여행/교통, 오락/문화 순으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면, 충남은 추가적으로 의류/잡화, 연료판매, 음료식품/건강식품에서도 소비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보다 소비감소의 폭이 크고 대부분의 품목에서 증감률이 (-)로 나타나는 등 영향이 더 컸다.

<세월호 사건 기간의 소비 품목별 신용카드소비총액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추이>

구분	충남		전국	
	2014년4월	2014년5월	2014년4월	2014년5월
교육	1.1%	-3.3%	-0.2%	3.1%
내구소비재	-11.8%	-24.9%	-29.8%	-1.2%
여행/교통	-6.8%	-32.1%	-25.4%	-11.9%
연료판매	-5.7%	-10.0%	-5.5%	-3.9%
오락/문화	5.7%	-17.9%	-9.0%	-1.8%
용역서비스	13.3%	-2.6%	1.8%	0.5%
유통업	8.4%	0.1%	0.1%	4.3%
음료식품/건강식품	12.5%	-9.9%	0.2%	10.3%
음식/숙박	15.0%	2.2%	5.7%	10.1%
의료/보건/보험	-0.2%	-5.9%	-2.3%	2.8%
의류/잡화	18.3%	-15.5%	-1.2%	1.7%
기타	17.8%	4.7%	9.8%	9.0%

자료 : 한국은행 신용카드소비통계

3. 결과 종합 및 시사점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소비총액자료를 바탕으로 충남의 소비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영향을 전국과 비교분석해보았다.

전국과 충남 모두 지속적으로 소비총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감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급감하였다가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충남은 전국보다 소비총액의 연평균증가율이 높은 지역이나 증감폭이 전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1가구당 소비총액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소비품목 중에서는 전국이 유통업 비중이 크고, 음식/숙박, 용역서비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면 충남은 연료판매, 유통업, 음식/숙박 순이며, 특히 연료판매 품목은 전국의 2배 이상으로 비중이 큰 지역이다.

소비동향에 따르면, 충남은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성장도 전국보다는 높은 편이나 소비증감폭의 변화가 큰 것으로 볼 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소비 품목의 비중도 전국과 달라,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소비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충남의 소비동향과 특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건은 전국보다 충남에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전국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면, 충남은 발생 시점이 지난 다음 달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등 시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충남은 소비품목 중에서 연료판매 비중이 큰 지역으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여행과 오락/문화 등이 감소되면서 전국보다 더 큰 감소를 겪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이 소비의 침체를 가져오는 사례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남 소비동향과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비시장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달리 지자체의 차별화된 소비진작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사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